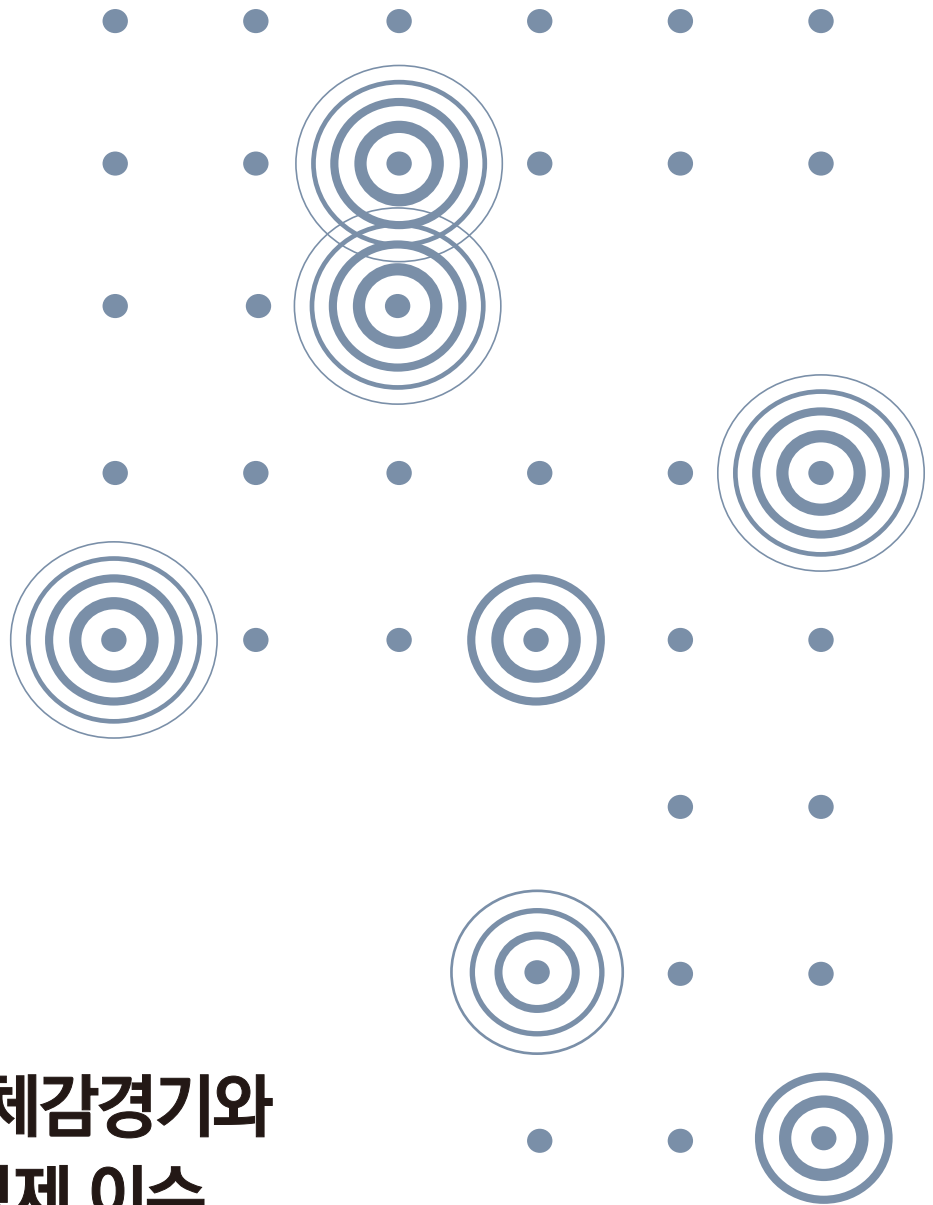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15호 2020. 12. 28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1년 주요 경제 이슈

최 봉

선임연구위원

오승훈

연구원

—————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315호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1년 주요 경제 이슈

발행인 서왕진
편집인 최 봉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0년 12월 28일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4/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1년 주요 경제 이슈

최 봉 선임연구위원
02-2149-1059
cbong@si.re.kr

오승훈 연구원
02-2149-1355
shoh0507@si.re.kr

요약	3
Ⅰ.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Ⅱ.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2021년 주요 경제 이슈	18
부록: 2020년 4/4분기 주요 조사결과	21

요약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상승, 제조업 생산은 큰 폭 하락

2020년 3/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2.7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였다. 「제조업생산지수」는 88.0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크게 하락(-16.8%)하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17.6%를 기록하였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와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2020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 6.2% 상승하였다. 2020년 11월 중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0.6% 감소한 509만 9천 명이며,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0.7% 감소한 86만 5천 명을 기록했다.

서울시민 체감경기지수는 전 분기보다 상승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0년 4/4분기 89.4로 전 분기 대비 1.5p 증가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1.4p 상승한 75.8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0.7p 상승한 93.9를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3.1p 하락한 50.0,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2.5p 상승한 78.7로 조사되었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96.0으로 전 분기 대비 1.3p 하락한 반면,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1.8p 상승한 85.1을 기록했다.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상승하였으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하락하였다. 「순자산지수」는 전 분기보다 하락했으나 「고용상황전망지수」, 「물가예산지수」는 전 분기보다 상승하였다.

2021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순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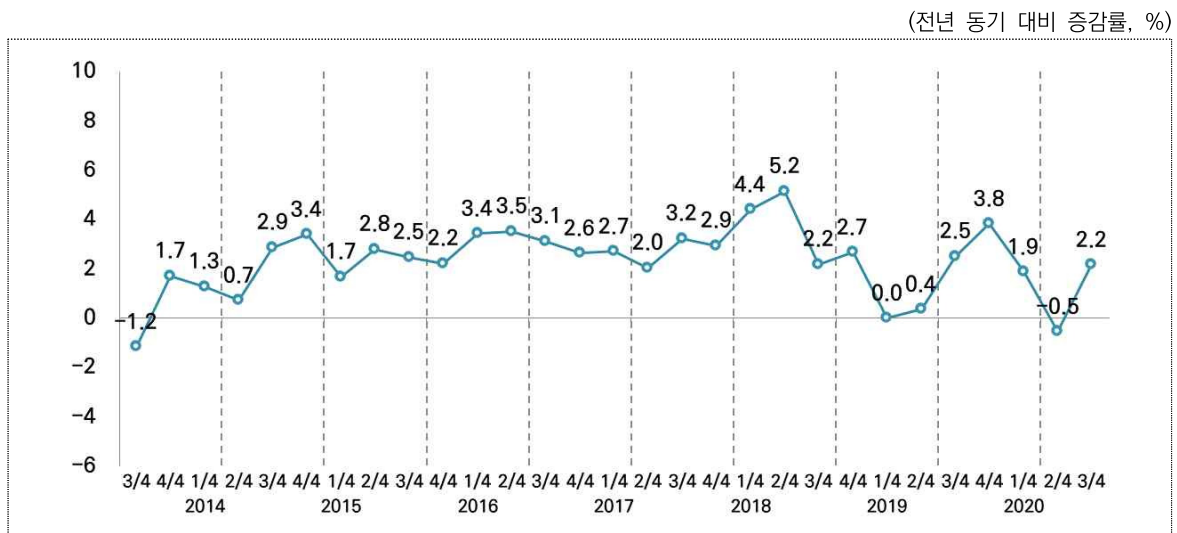
내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1위는 1순위 기준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24.1%)로 조사되었다. 그다음은 ‘생활물가’(10.6%), ‘코로나19 관련’(10.2%),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9.6%), ‘전월세 가격 인상’(7.6%),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서울시민은 대다수 경제 이슈가 내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11개 경제 이슈의 개선 전망 점수가 모두 기준치(10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선 전망 점수가 가장 높은 경제 이슈는 ‘주식시장’(86.1점)이었으며, 그다음은 ‘가계소득’(71.5점), ‘청년실업 및 고용’(71.3점),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70.7점), ‘코로나19 관련’(68.9점), ‘생활물가’(65.5점)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50.0점으로 개선이 가장 힘들 것으로 보았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I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상승, 제조업 생산은 큰 폭 하락

2020년 3/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

- 2020년 3/4분기 서울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2.7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
 - 3/4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하며 상승으로 전환
 - ‘금융 및 보험업’(27.6%)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부동산업’(16.2%)은 증가, 그 외 업종의 생산지수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47.5%를 기록해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운수 및 창고업’(-34.0%), ‘숙박 및 음식점업’(-14.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0.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6.2%) 등 순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
- 2020년 10월 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88.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8%의 큰 폭 하락
 - 「제조업생산지수」는 2020년 10월 전년 동월보다 16.8% 감소하며 2018년 12월부터 2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기록
 - 2020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12.8%를 보인 이후로 감소율이 두 자리를 기록하는 추세로,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17.6%를 기록하며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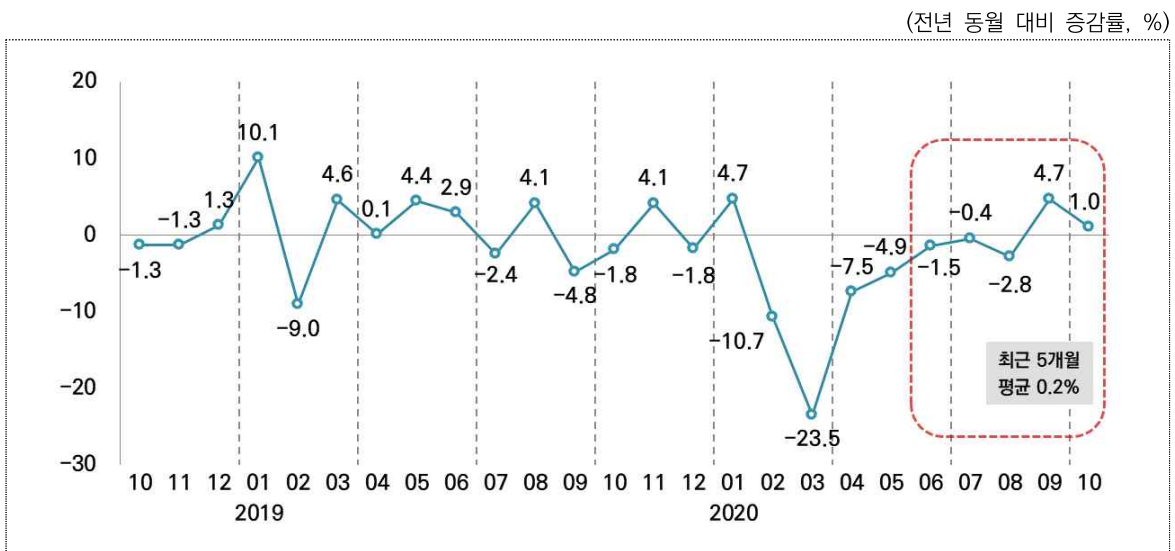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¹⁾

1) 2019년 1월 공표 시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른 최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계절조정 작업으로 2000년 이후 시계열이 변경되었음.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

- 2020년 10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²⁾는 102.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20년 9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올라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0.2% 기록
- 부문별로 보면, 10월 중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6.2% 증가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109.0으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 하락하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2.7%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 9월부터 기준치 100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90.2로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2020년 7월부터 상승을 이어가며 최근 5개월간 평균 증감률 5.8%를 기록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기준치(100) 이상이며,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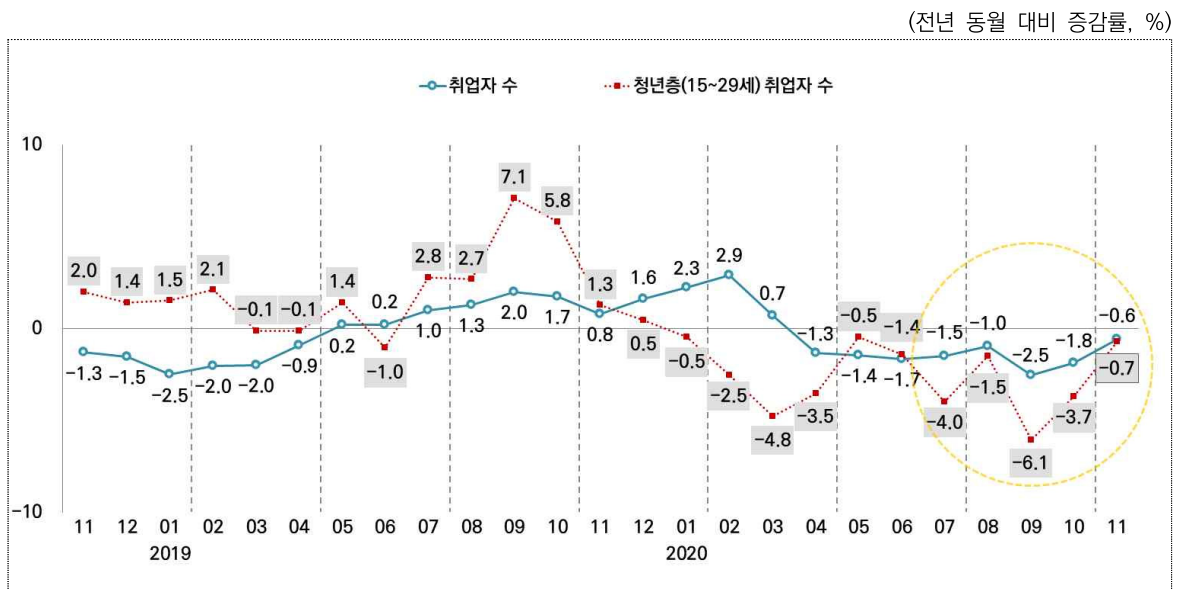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모두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뀌면서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바뀌었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웃렛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웃렛이 제외되었음

전체 취업자 수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소폭 감소

- 2020년 11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³⁾는 509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512만 9천 명)보다 0.6%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본 전체 「취업자 수」는 2020년 4월부터 하락세가 지속되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1.5%를 기록
- 2020년 11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7만 1천 명)보다 0.7% 감소한 86만 5천 명으로 조사
 - 전년 동월 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는 -0.7%의 증감률을 보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감률보다 하락 폭이 컸으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3.2%를 기록
 -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11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특히 9월에 -6.1%로 큰 폭으로 감소
-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2020년 11월 「취업자 수」와 「청년층 취업자 수」 모두 소폭 증가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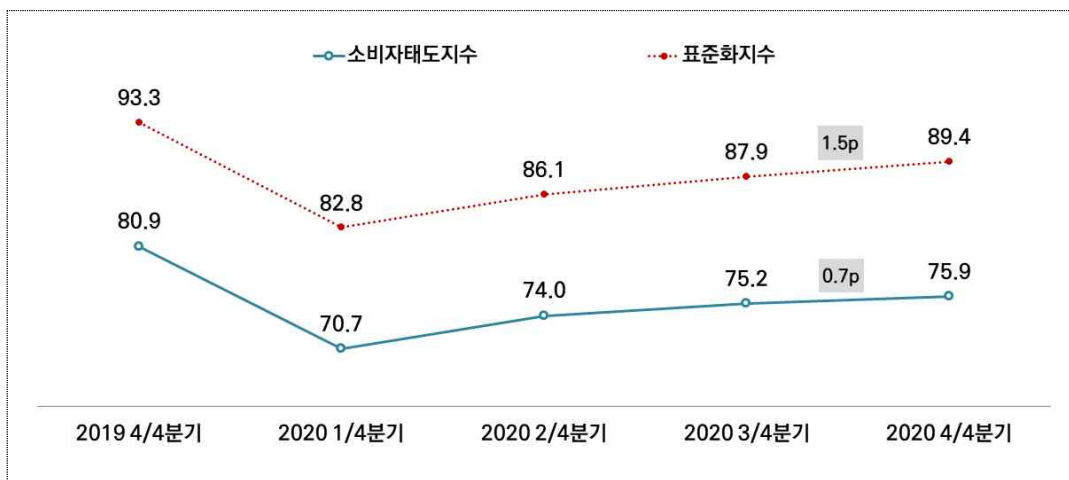
3) 고용통계는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II. 서울의 4/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I 서울시민 체감경기지수는 전 분기보다 상승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

- 2020년 4/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⁴⁾ 기준 89.4로 전 분기 대비 1.5p 증가
 - 「소비자태도지수」의 표준화지수는 전 분기보다 1.5p 증가한 89.4를 기록
 - 연 가구소득별로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 대비 4.7p 오른 78.1을 기록하며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별로는 40대가 2.1p 올라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
- 4/4분기 이후 올해 서울시민의 「소비자태도지수」는 당분간 기준치(100)를 밑돌 전망
 - 「소비자태도지수」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민생과 직결된 경기상황, 고용지표 등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왔기에,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소비위축, 경기 및 고용 침체 등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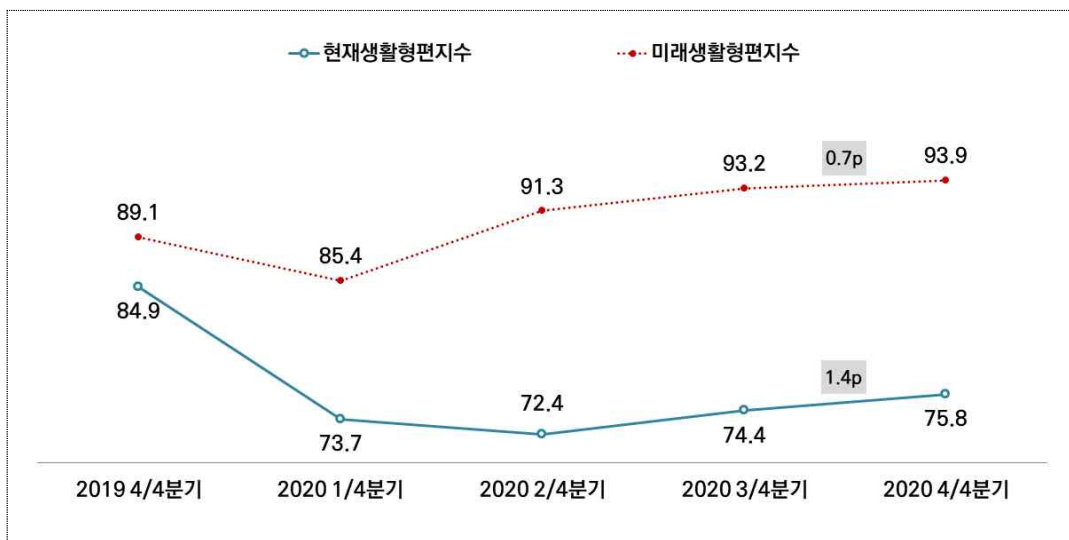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4)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임. 연도별로 조사되는 시계열의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함

전 분기 대비 현재생활형편지수, 미래생활형편지수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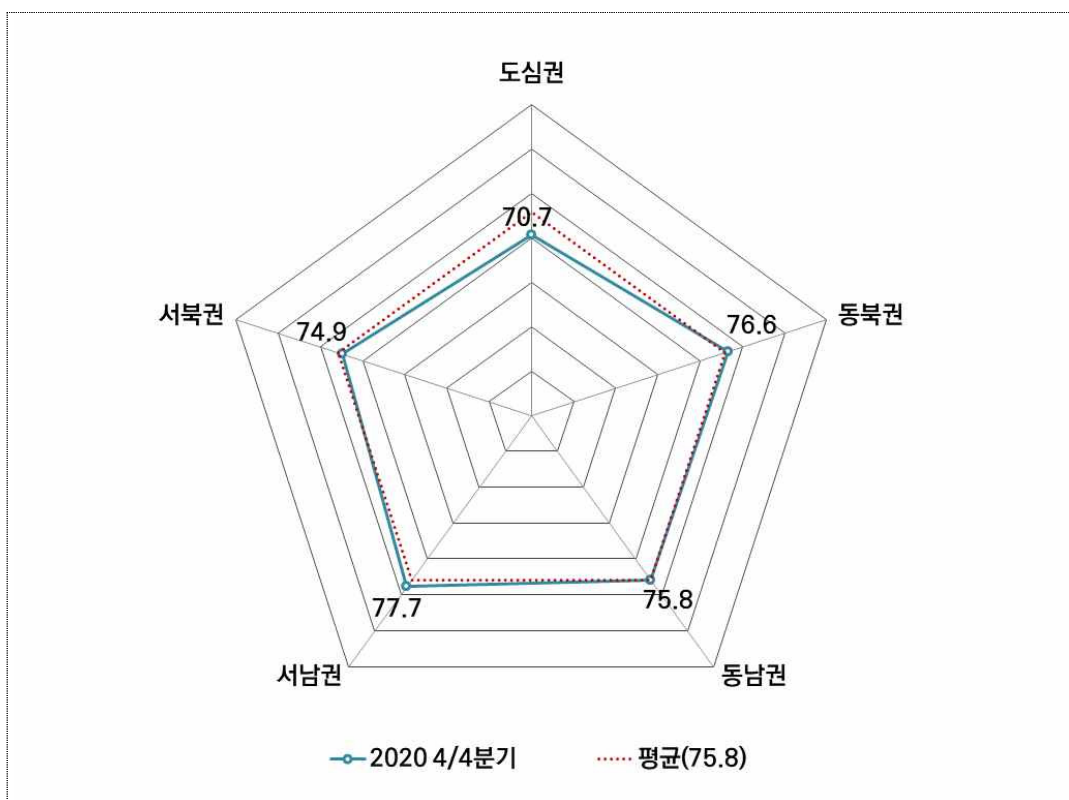
- 2020년 4/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1.4p 상승한 75.8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0.7p 상승한 93.9를 기록
 -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연 가구소득 2,400만 원 미만 가구의 「현재생활형편지수」가 8.5p,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의 「미래생활형편지수」가 7.9p 올라 전 분기보다 가장 많이 상승
 - 연령별로는 30대에서 「현재생활형편지수」가 3.4p, 50대에서 「미래생활형편지수」가 3.4p 올라 전 분기 대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
-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개선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 1순위는 가계소득 증가
 - ‘가계소득 증가’가 43.6%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14.4%), ‘막연한 기대감’(14.0%), ‘지출비용 감소 예정’(9.6%) 등의 순으로 응답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소득 증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400만 원 미만 가구는 ‘막연한 기대감’(30.0%)이, 7,200만 원 이상 가구에서는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22.6%)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서남권이 제일 높고, 도심권이 가장 낮게 조사

- 2020년 4/4분기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서남권이 77.7로 가장 높게 조사
 - 그다음은 동북권(76.6), 동남권(75.8), 서북권(74.9), 도심권(70.7) 순으로 조사
- 2020년 4/4분기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에서 도심권이 2020년 3/4분기 대비 9.0p 내려 가장 크게 하락
 - 9.0p 내린 도심권을 제외하고 모든 권역에서 「현재생활형편지수」가 오른 것으로 조사
 - 서북권의 「현재생활형편지수」가 전 분기 대비 5.5p 올라 상승폭이 제일 큰 것으로 조사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전 분기 대비 현재경기판단지수는 하락,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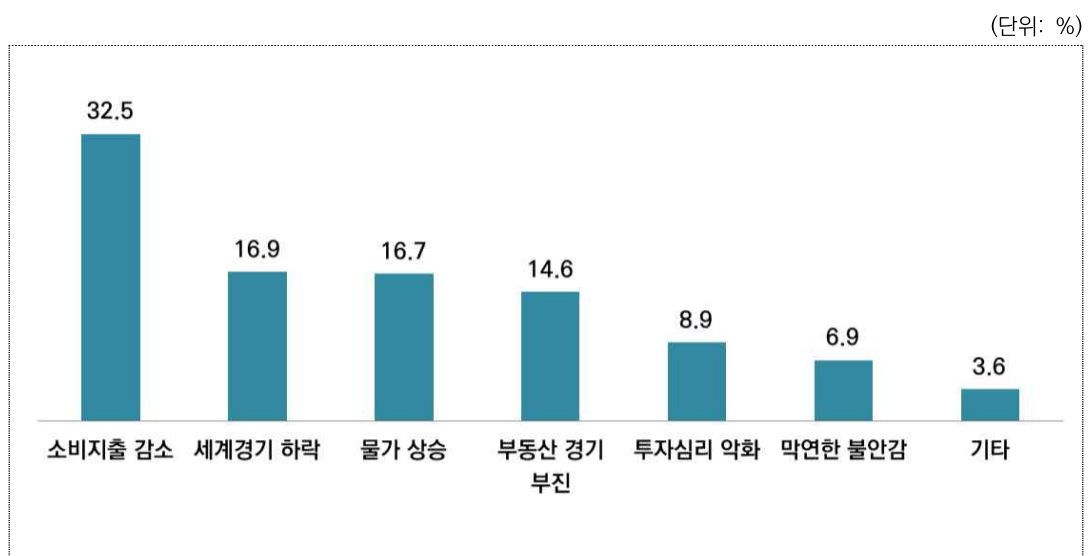
- 2020년 4/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50.0으로 전 분기 대비 3.1p 하락
 - 2분기 연속 상승을 이어오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4/4분기에 하락으로 전환하며 50.0의 낮은 수치를 기록
 - 연 가구소득별 「현재경기판단지수」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가 4.1p 내리며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별 「현재경기판단지수」는 50대가 3.7p 내리며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하락
- 2020년 4/4분기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78.7로 전 분기 대비 2.5p 상승
 - 지난 분기 하락으로 전환한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020년 4/4분기에 상승으로 반전
 - 연 가구소득별 「미래경기판단지수」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가 6.8p 올라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올랐으며,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는 1.7p 내려 유일하게 감소
 - 연령별 「미래경기판단지수」는 모든 연령에서 올랐으며, 40대(3.0p), 30대 이하(2.8p), 60대(2.4p), 50대(1.5p) 순으로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조사



[그림 7]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소비지출 감소, 세계경기 하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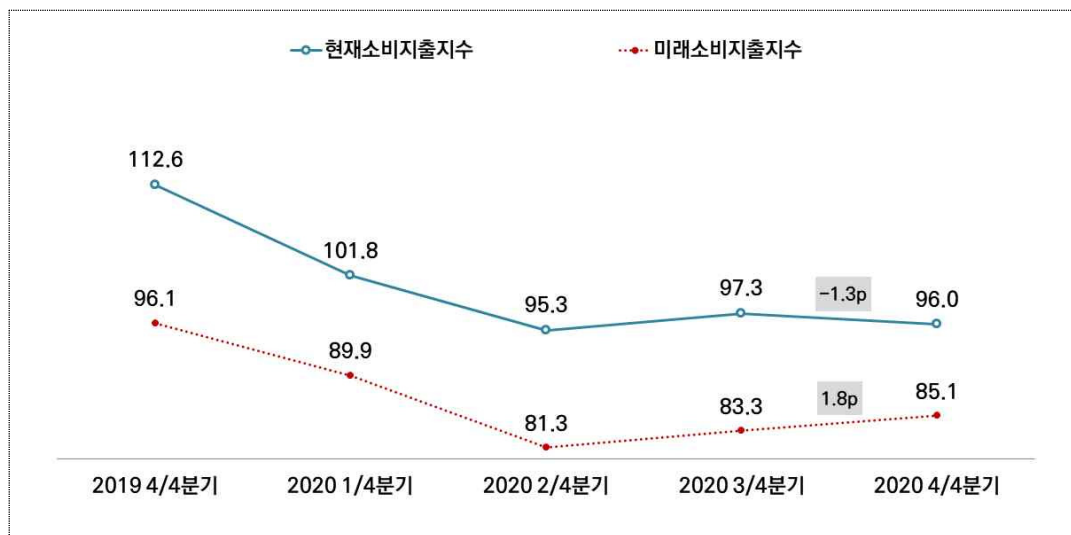
-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주로 ‘소비지출 감소’, ‘세계경기 하락’, ‘물가 상승’ 등으로 조사
 - ‘소비지출 감소’가 32.5%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세계경기 하락’(16.9%), ‘물가 상승’(16.7%) 순으로 조사
- 소득수준과 연령대별 조사에서 대체로 ‘소비지출 감소’를 가장 큰 악화 전망 이유로 지목
 - 연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소비지출 감소’ 응답이 높은 가운데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는 ‘세계경기 하락’이 2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지출 감소’ 응답이 높았으며, 50대에서 ‘투자심리 악화’(11.7%)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2020년 11월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로 전월(0.2%)과 전년 동월(0.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0년 7월 0.5% → 8월 0.8% → 9월 0.9% → 10월 0.2% → 11월 0.6%



[그림 8]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하락,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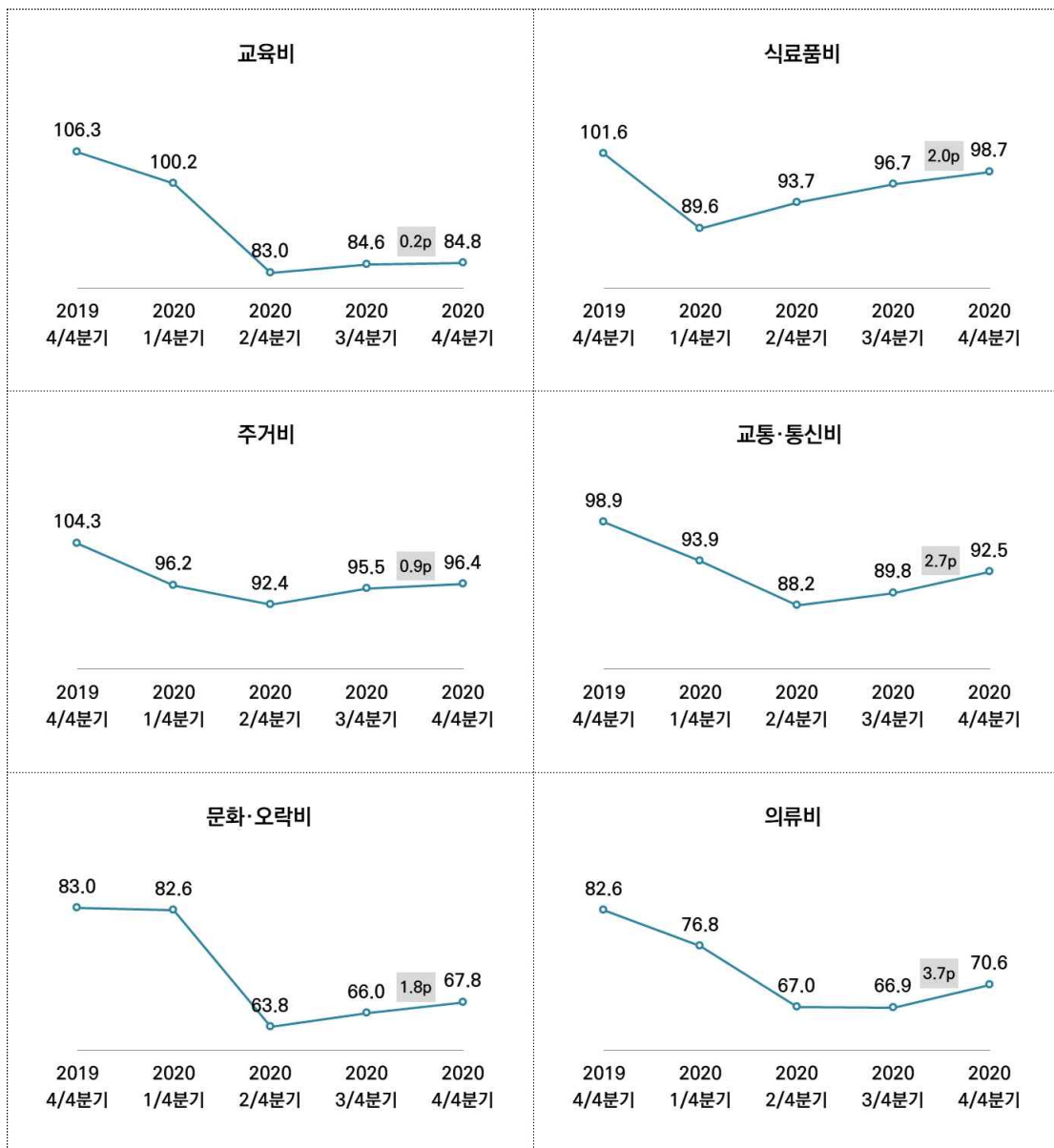
- 2020년 4/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96.0으로 전 분기 대비 1.3p 하락
 - 2020년 3/4분기에 상승으로 전환했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4/4분기에 1.3p 감소하며 하락으로 반전
 - 연 가구소득별로는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의 「현재소비지출지수」가 전 분기 대비 7.9p 내려 가장 많이 하락
 - 연령별 「현재소비지출지수」는 60대(-9.4p)와 50대(-4.0p)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
- 2020년 4/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5.1로 전 분기보다 1.8p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 본 「미래소비지출지수」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가 5.0p 올라 가장 많이 상승
 - 연령별로 본 「미래소비지출지수」는 30대 이하가 3.6p 올라 가장 많이 상승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든 품목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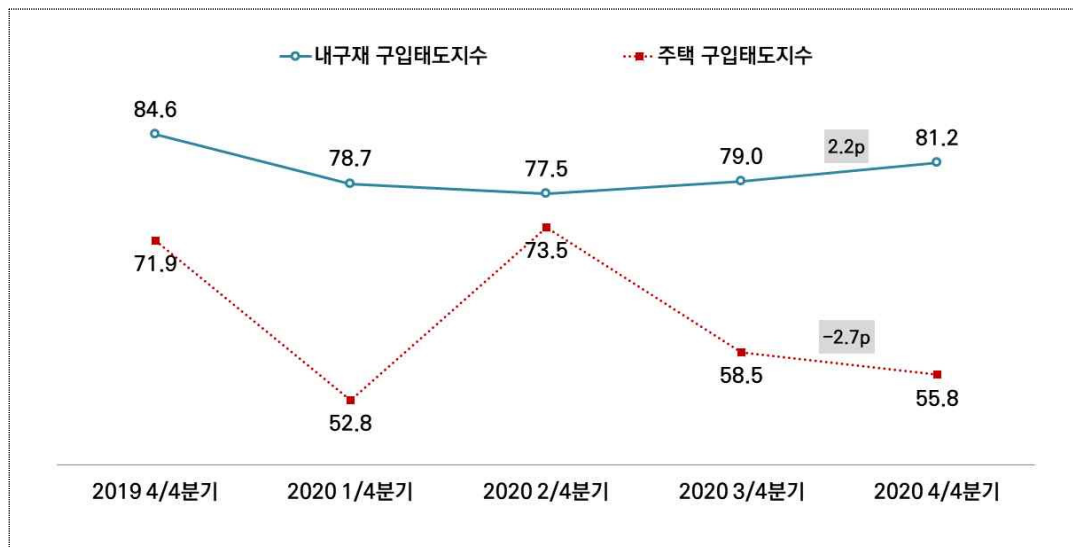
- 2020년 4/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든 품목이 상승
 - ‘의류비’ 지수가 전 분기 대비 3.7p 올라 전 품목 중에서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의류비’에 이어 ‘교통·통신비’(2.7p), ‘식료품비’(2.0p), ‘문화·오락비’(1.8p), ‘주거비’(0.9p), ‘교육비’(0.2p) 순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조사
- ‘식료품비’ 지수가 가장 높게 조사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식료품비’가 98.7로 가장 높은 반면, ‘문화·오락비’가 67.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의사는 상승, 주택 구입의사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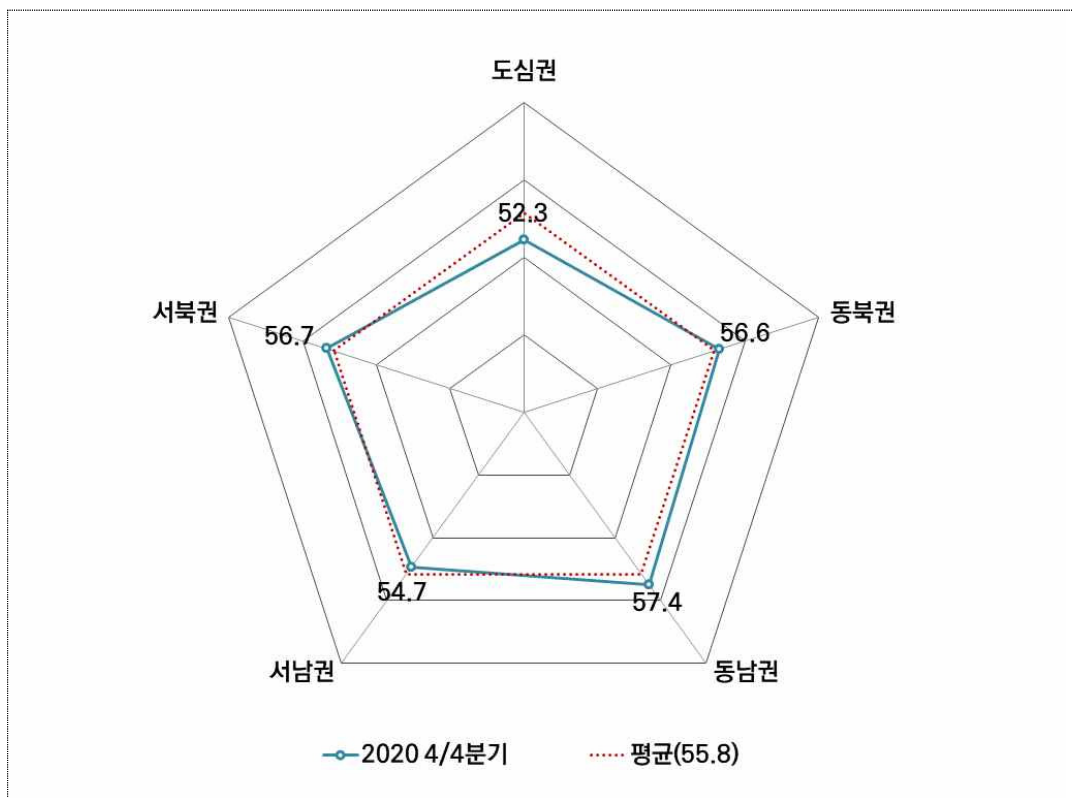
- 2020년 4/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2.2p 올라 81.2를 기록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6.9p 상승해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상승
 -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 분기 대비 0.2p 내려 유일하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40대에서 「내구재 구입태도지수」가 전 분기 대비 9.6p 상승해 가장 크게 올랐으며, 30대 이하 가구도 2.3p 상승한 것으로 조사
 - 반면, 60대, 50대는 전 분기 대비 각각 3.0p, 0.7p 하락한 것으로 조사
- 2020년 4/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55.8로 전 분기 대비 2.7p 하락
 - 연 가구소득별로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대부분 소득계층에서 하락하였으며, 7,200만 원 이상 가구의 하락 폭이 6.8p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0.8p 올라 유일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 본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50대가 4.9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그다음은 60대(-3.2p), 30대 이하(-2.9p) 순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
 - 반면, 40대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0.2p 올라 유일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
 -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2020년 3/4분기부터 2분기 연속 하락
 - 2020년 11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110.8로 장기간 정체 지속 (2020년 7월 109.7 → 8월 110.1 → 9월 110.4 → 10월 110.6 → 11월 110.8)



[그림 11]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서남권, 도심권, 동북권의 주택 구입의사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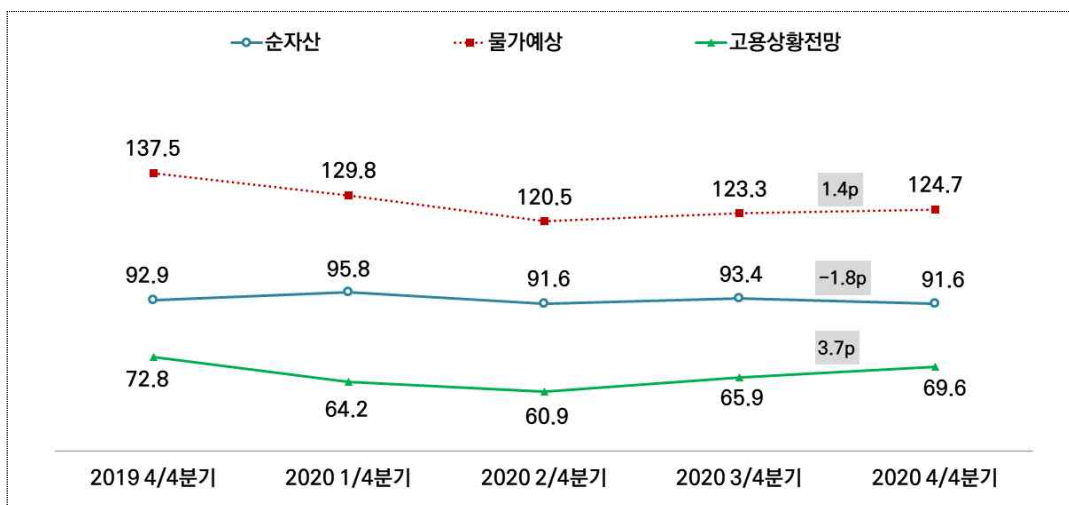
- 2020년 4/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서남권이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폭(5.2p)으로 하락
 - 서남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54.7로 전 분기 대비 5.2p 내리며, 전 권역에서 가장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
 - 그 외에 도심권이 전 분기 대비 5.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북권 역시 4.9p 하락
 -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오른 권역은 서북권(1.8p)과 동남권(0.8p)인 것으로 조사
- 도심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가장 낮은 편
 -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가장 낮은 권역은 도심권(52.3)이며, 가장 높은 권역은 동남권(57.4)인 것으로 조사



[그림 12]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순자산지수는 하락, 고용상황전망지수와 물가예상지수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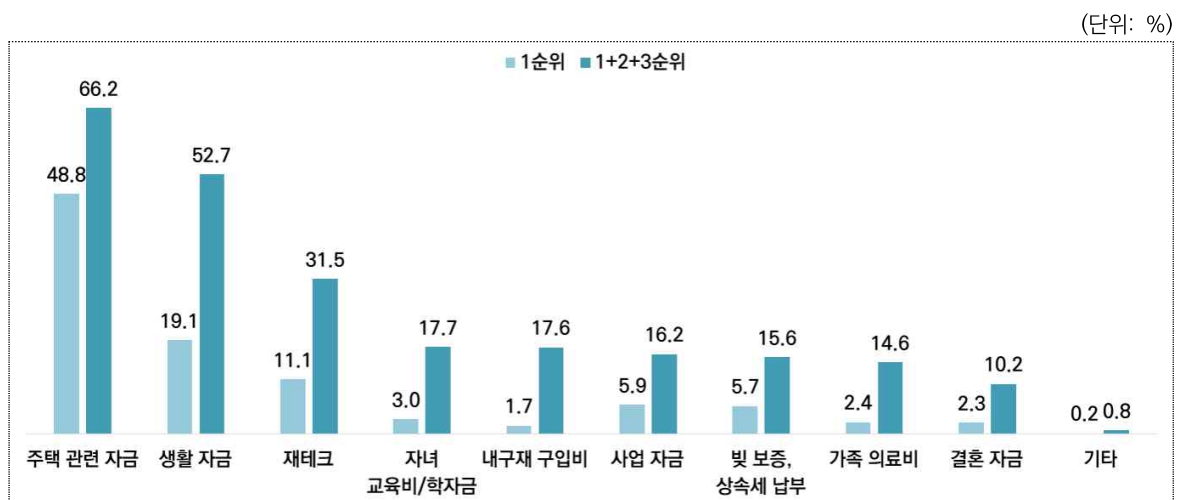
- 2020년 4/4분기 「순자산지수」는 91.6으로 전 분기 대비 1.8p 하락
 - 가계의 순자산이 감소한 이유로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부채가 늘었다’(20.0%), ‘지출이 늘었다’(14.9%) 등의 순
 - 연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득이 줄었다’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부채가 늘었다’가 30.5%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이 줄었다’가 가장 높은 가운데 40대와 30대 이하에서 ‘부채가 늘었다’가 각각 23.3%, 22.9%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2020년 4/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124.7로 전 분기 대비 1.4p 상승
 - 2020년 4/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2020년 3/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7.6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전 분기 대비 5.4p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2020년 4/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69.6으로 전 분기보다 3.7p 상승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20년 4/4분기에 전 분기 대비 3.7p 상승한 69.6을 기록하며 2분기 연속으로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고용상황전망지수」가 상승했으며, 특히 7,200만 원 이상 가구가 5.6p 올라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상황전망지수」가 상승했으며, 40대가 5.0p 올라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



[그림 13]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전 분기보다 소폭 감소

- 2020년 4/4분기에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 대상 가구의 55.5%로 전 분기 대비 0.7%p 하락
 - 연 가구소득별로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7%로 가장 높게 조사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57.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40대(56.6%), 50대(55.7%), 60대(50.0%) 순으로 조사
 - 가계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은 18.6%로 전 분기 대비 1.4%p 감소⁵⁾
 - 가계부채의 상환 형태는 ‘원리금 상환’이 60.1%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이자만 상환’ (35.7%), ‘상환 안 함’(4.2%)의 순으로 조사
-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주택 관련 자금’(48.8%)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생활 자금’(19.1%), ‘채테크’(11.1%), ‘사업 자금’(5.9%), ‘빚 보증, 상속세 납부’(5.7%) 등의 순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와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생활 자금’ 비중이 각각 30.6%, 30.0%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으며, 40대가 53.9%로 가장 높게 조사
 - 1~3순위 기준 역시 ‘주택 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각각 66.2%, 52.7%로 가장 높았으며, ‘채테크’(31.5%)와 ‘자녀 교육비/학자금’(17.7%)도 높은 수준



[그림 14]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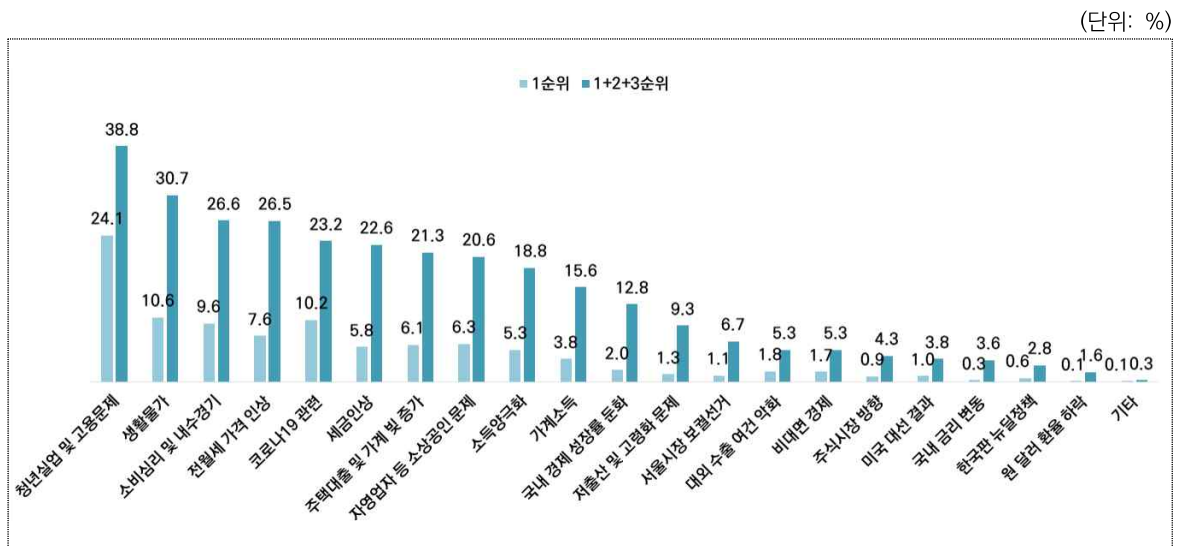
5) 2019년 4/4분기까지는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하였으며, 2020년 1/4분기부터는 연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하였음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2021년 주요 경제 이슈

Ⅰ 서울시민의 2021년 경제 이슈 1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서울시민이 본 내년 경제 이슈 1위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 내년 경제 이슈로 1순위 및 1~3순위 합계의 응답 결과를 보면, 모두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작년에 비해 3.9%p 하락
 - 그다음 ‘생활물가’(10.6%), ‘코로나19 관련’(10.2%),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9.6%), ‘전월세 가격 인상’(7.6%),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문제’(6.3%) 등의 순으로 조사
 - 1~3순위 합계 결과도 38.8%가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를 지목하였고, 그다음은 ‘생활물가’(30.7%),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26.6%), ‘전월세 가격 인상’(26.5%), ‘코로나19 관련’(23.2%), ‘세금인상’(22.6%), ‘주택대출 및 가계 빚 증가’(21.3%) 등의 순으로 응답
 - 1순위 기준으로 연 가구소득별로는 대부분 소득계층에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가 가장 높으며, 40대에서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와 ‘생활물가’가 14.8%로 동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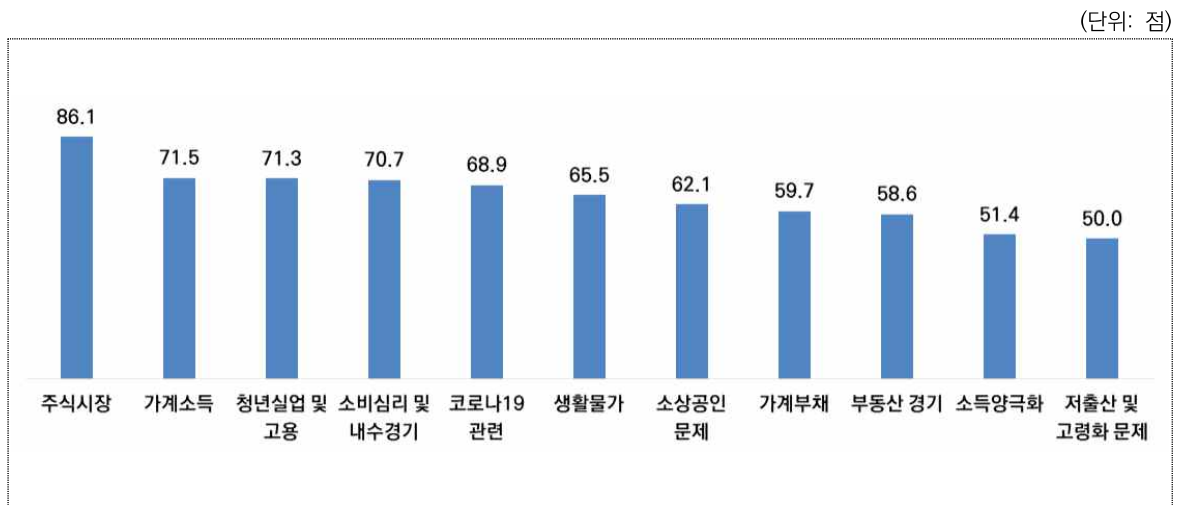


[그림 15] 2021년 서울시민의 경제 이슈

자료: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 대상 설문조사 중 1,200명 응답

서울시민은 대다수 경제 이슈가 내년에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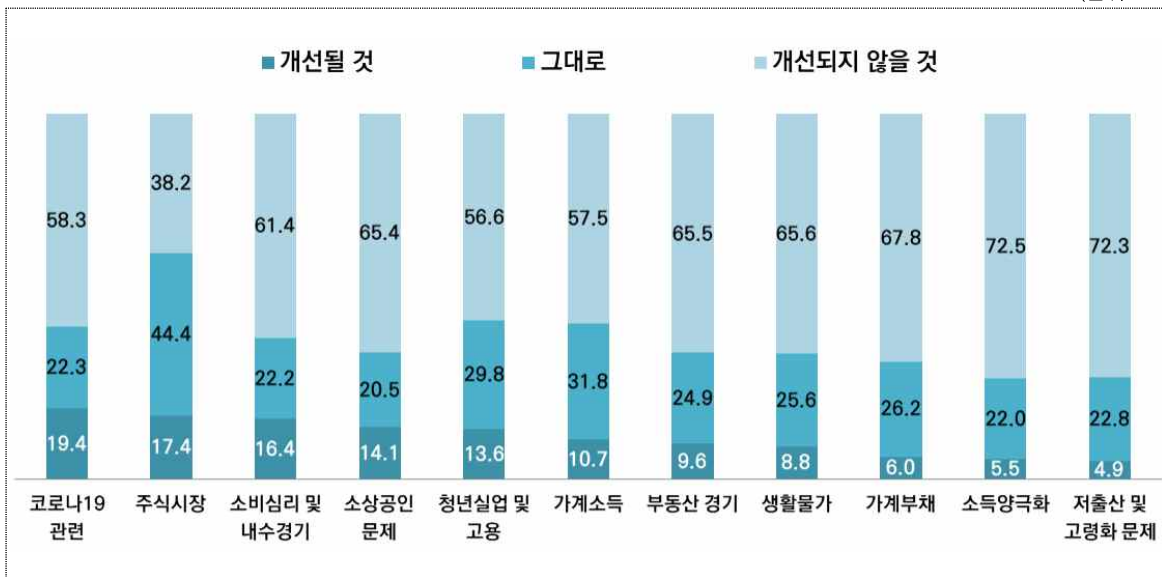
- 각 경제 이슈가 내년에 올해보다 얼마나 개선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다수 시민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11개 경제 이슈의 개선 전망 점수가 모두 기준치(100)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 개선 전망 점수가 가장 높은 경제 이슈는 ‘주식시장’(86.1점)이었으며, 그다음은 ‘가계소득’(71.5점), ‘청년실업 및 고용’(71.3점),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70.7점), ‘코로나19 관련’(68.9점), ‘생활물가’(65.5점) 순으로 조사



[그림 16] 2021년 경제 이슈별 개선 전망 점수

- 한편 개선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경제 이슈는 ‘코로나19 관련’이고,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경제 이슈는 ‘소득양극화’로 조사
 - ‘코로나19 관련’이 개선될 것으로 본 응답 비율은 19.4%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주식시장’(17.4%), ‘소비심리 및 내수경기’(16.4%), ‘소상공인 문제’(14.1%), ‘청년실업 및 고용’(13.6%) 등의 순
 - 반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소득양극화’가 72.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72.3%), ‘가계부채’(67.8%), ‘생활물가’(65.6%) 등의 순으로 조사

(단위: %)



[그림 17] 2021년 경제 이슈별 개선 전망

부록: 2020년 4/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한국은행은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
 - 한국은행의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7.9로 전월 대비 6.3p 상승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9년 4/4분기	93.3	84.9	89.1	67.0	78.9	84.6	71.9
2020년 1/4분기	82.8	73.7	85.4	47.9	67.8	78.7	52.8
2020년 2/4분기	86.1	72.4	91.3	51.7	77.3	77.5	73.5
2020년 3/4분기	87.9	74.4	93.2	53.1	76.2	79.0	58.5
2020년 4/4분기	89.4	75.8	93.9	50.0	78.7	81.2	55.8

*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9년 4/4분기	112.6	96.1	92.9	72.8	137.5
2020년 1/4분기	101.8	89.9	95.8	64.2	129.8
2020년 2/4분기	95.3	81.3	91.6	60.9	120.5
2020년 3/4분기	97.3	83.3	93.4	65.9	123.3
2020년 4/4분기	96.0	85.1	91.6	69.6	124.7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3\%p$ 임
(2020년 4/4분기 조사 시점은 2020년 11월 4일~11월 20일)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